



"서른 과부는 넘겨도 마흔 과부는 못 넘긴다"

뜻: 젊을 때는 외로움을 잘 견딜 수 있어도,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진다는 말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나이 · 외로움 · 변화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서	른	과	부	는	넘	겨	도			
마	흔	과	부	는	못	넘	긴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서	른	과	부	는	넘	겨	도			
마	흔	과	부	는	못	넘	긴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스르] [ㅏ부르] [ㄴ겨도] [모흔] [ㅏ부르] [모] [ㄴ겨다]

웹에서 보기

